

보도시점 : 2025. 9. 30.(화) 11:00 이후(10. 1.(수) 조간) / 배포 : 2025. 9. 30.(화)

국내 첫 수소열차, 경원선·교외선에서 실증 추진

- 연천역에 다목적 수소충전소 구축... '27년부터 수소열차 시험 운행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「수소전기동차 실증 R&D 사업」*의 실증 노선을 경원선 연천~백마고지역(21.0km)과 교외선 대곡~의정부역(30.3km) 구간으로 확정하고, '27년부터 국내 최초로 수소열차 시험 운행에 나선다.

* '25.4~'27.12월까지, 총 321억 원 투입, 코레일·철기연·(주)우진산전 등 7개 기관 참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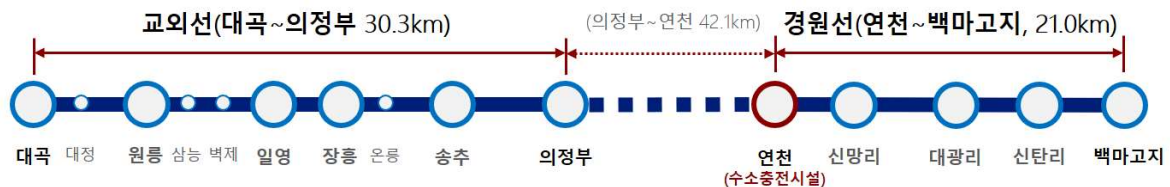
- 이번 사업은 수소열차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기존 운영 노선에 충전·정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, 시험 운영을 통해 차량 성능과 운행 안전성을 종합 검증하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지난 4월 착수했다.

- 이후 현장 조사, 전문가 기술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수도권 대표적 비전철 노선인 해당 구간을 실증 노선으로 선정*했다.

* 수소 열차 시험 환경, 충전·정비 인프라 접근성, 장래 운행 수요 등 종합 고려

- 현재 경원선(연천~백마고지)과 교외선(대곡~의정부)은 디젤열차가 운행(경원선 예정)하고 있어 소음 및 매연 등 취약점을 고려할 경우, 친환경 수소열차 전환 수요가 높은 노선이다.

《 경원선 및 교외선 실증 노선 구간》



* (교외선) '25.1월 개통 후 현재 디젤열차 3편성(예비 1편성 포함) 운행 중 (경원선) 현재 재개통을 위해 시설물 개량 중, 향후 디젤열차 1편성 투입 예정

- 실증 노선에는 최고속도 150km/h, 1회 충전 주행거리 600km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신규 개발된 수소전기동차* 1편성(2칸)이 투입되어 '27년부터 약 1년간 70,000km 이상 시험 운행을 실시한다.

* 객차에 동력이 분산되고 양방향 운행이 가능한 중·근거리용(통근용) 수소열차

- 차량 정비 및 검수는 한국철도공사(이하 코레일) 수색·청량리 차량기지 에서 진행하며, 실증 이후 영업 운행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차량 성능·안전성, 시설물과의 운영 적합성 등을 종합 검증할 예정이다.

《 수소전기동차 조감도 및 주요 제원(안) 》
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차량 출력 : 1.2MW ■ 1회 충전 거리 : 600km ■ 최고 속도 : 운행 최고 150km/h, 설계 최고 165km/h ■ 추진 방식 : 동력분산식 ■ 탑승 규모 : 105~125석 ■ 차량 제작 : (주)우진산전
--	--	---

- 또한, 지역 교통 거점인 연천역(경원선)에는 수소열차뿐 아니라 수소버스·승용차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가 이용 가능한 다목적 수소충전소를 '26년까지 구축한다.
- 충전소는 철도차량 유치선과 연결하고 도로 접근성이 우수한 역 유희 부지에 설치되며, 주변 주거·상업 시설과도 충분히(80m 이상) 떨어져 있어 안전관리에 유리하다.
- 충전설비는 시간당 160kg급 충전기 3기로, 하루 최대 1,300kg의 수소를 공급할 수 있어 수소전기동차 7편성 또는 수소버스 37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다.

《 다목적 수소충전소 개념도 및 주요 제원(안) 》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부지 면적 : 3,800m² ■ 충전기 수량 : 3기 (열차·자동차 혼용) ■ 충전 압력 : 700bar ■ 충전 속도 : 160kg/h ■ 저장 용기 : (중압) 1,000L x 6기 (고압) 553L x 3기 ※ 수소 충전에 열차는 약 43분, 승용차는 약 3분, 버스는 약 18분 소요
---	--

- 아울러, 수소열차 실증 사업 주관 기관인 코레일은 다목적 수소충전소의 신속한 구축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오는 10월 1일 코하이젠(주), 연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- 협약에 따라 △코레일은 수소열차 보급·운영 확대, △코하이젠(주)는 충전소 설치·운영 활성화, △연천군은 부지 제공 및 지역 수소차 전환* 지원을 담당한다.
- * '33년까지 내구연한 경과된 관용차량 및 시내버스 등 총 123대
- 이를 통해 철도 운영사, 충전 사업자 및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여 지역 수소모빌리티 확산 기반을 마련하는 선도적 사업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.
- 국토교통부는 실증 사업 종료 후 수소전기동차 3편성을 추가 제작·투입하여, 실증 노선에서 운행 중인 노후 디젤열차를 단계적으로 친환경 수소열차로 전환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“철도 탄소중립 실현과 서비스 혁신은 물론, 급성장하는 글로벌 수소철도 시장 선점을 위해 국내 수소열차 상용화를 앞당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”며, “이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과 기술개발 투자 등 필요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국토교통부	철도국 철도운영안전과	책임자	과 장	한성수 (044-201-4611)
		담당자	사무관	김정현 (044-201-4620)
			주무관	김동희 (044-201-4890)
한국철도공사	RE100추진단	책임자	단 장	박영식 (042-615-6263)
		담당자	팀 장	최성수 (042-615-6277)

참고

수소열차 실증 운행 노선도

